

2016 기상직 7급 - 영어 (A형) 유원지

1. [정답] ①

[해석] 1674년, 자신이 (A)집에서 만든 현미경으로, Antoni van Leeuwenhoek은 미생물을 보고 묘사한 최초의 사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계의 (B)존재를 진정으로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해설] (A): his own (A)는 명사 microscope을 수식하므로,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집에서 만든’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homemade가 적절하다.

(B): 동사 comprehend의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이므로 명사 existence가 적절하다.

2. [정답] ④

[해석] 핀란드의 심리학자 Antti Revonsuo는 고립된 쥐들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꿈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믿는다.

[해설] maroon : 고립시키다 / strand : 좌초시키다,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

3. [정답] ②

[해석] 분노는 양면적일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인식되는 것처럼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룩하고 더 나은 쪽으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적일 수 있다.

[해설] 분노가 ‘파괴적’이면서 ‘건설적’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글이므로, 이를 설명하는 단어는 ‘양면 가치의, 상반되는 감정이 병존하는, 양가적인’ 등의 의미를 지닌 ambivalent가 적절하다.

[어휘] indiscreet : 무분별한, 경솔한 / meticulous : 지나치게 세심한, 신중한 / contagious : 전염성의, 만연하는

4. [정답] ④

[해석] ① 현재의 많은 환경적 도전은 지하수 오염의 위험, 그것이 발생한 위치의 복원과 관련되어 있다.

② 모든 물체는 그것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상태 변화가 강제되지 않는 한 정지 상태나 직선 등속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③ 우리의 태양과 그 주위의 모든 행성들은 우리 은하로 알려진 은하의 일부이다.

④ 떠 있는 물체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채울 유체를 대신하고 있다.

[해설] ④ otherwise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였고, fill the space 뒤에는 관계사 that[which]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관계사는 the space를 선행사로 하며, occupy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사는 관계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① 문장 끝의 what 앞에 선행사 locations가 있고, occu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관계절 it has occurred 역시 부족한 성분이 없다. 따라서 what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의미상 그것이 발생한 ‘위치’이므로 what을 where 혹은 in which로 바꿔야 적절하다.

② 주어는 Every object로 단수, 동사는 persists가 단수형으로 옮겨 쓰였고, unless 이하는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이 때 뒤의 forces는 it(=object)에 ‘가해지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impressing을 과거분사 impressed로 바꿔야 한다. impress는 타동사이므로 현재분사로

쓸 경우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현재분사의 사용은 옳지 않다. 과거분사로 바꿨을 경우, forces 뒤에는 ‘관계사(that[which]) + be동사(are)’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주어가 Our sun and all the planets around it으로 복수이므로 본동사 is는 복수형 are로 바뀌어야 한다. 뒤의 known as는 옳게 쓰였다. known as는 ‘~으로 알려져 있다’는 뜻으로 그 대상과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known for는 ‘~라는 특성(특징)으로 알려져 있다’는 뜻이다.

5. [정답] ②

[해석] 숲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대기 중으로 다시 ①증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빽빽한 숲은 습한 공기를 액화하여 수분을 ②거부한다(→담아 둔다). 우리는 점차 숲에 물을 주는 것을 줄이고 결국 멈추게 된다. 그리고 물을 주지 않더라도, 숲의 바닥은 습기가 있는 상태를, 때로는 심지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한다. 이 때, 숲 바닥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지면, 그것은 즉시 ③썩기 시작한다. 이 바이오매스는 부식토를 형성하는데, 이는 숲의 영양분이 된다. 숲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나뭇잎이 표면에 떨어지고, 이는 더 많은 부식토가 형성됨을 의미하며, 숲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숲은 계속 ④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

[해설] ② 이 문장 뒤에서, 숲에 물을 주지 않더라도 숲의 바닥이 습기가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숲은 습한 공기를 액화하여 그 수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담아 두는(저장해 두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따라서 keeps, holds 정도로 고쳐 주어야 한다.

6. [정답] ①

[해석] Judy: 오늘 우리 아들 학교 공개수업에 갔다 왔어.

Eric: 너희 아들이 무엇을 했니? 뭔가 재미있는 거라도?

Judy: 응, 개네 반은 학교 정책에 대해 토론했어.

Eric: 와, 학생들한테는 꽤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Judy: 맞아, 하지만 선생님이 그들의 생각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면서 도와줬어.

Eric: 오, 알겠다. 그녀가 학급에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한 거구나.

Judy: 네 말이 맞아. 그녀 덕분에 학생들은 반대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옹호할 수 있었어.

[해설] devil's advocate : 선의의 비판자((열띤 논의가 이뤄지도록)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

beat around the bush : 변죽을 울리다, 돌려 말하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

the last straw : 최후의 희망

7. [정답] ②

[해석] A: John의 구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B: John은 이력서는 아주 잘 썼지만,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똑똑한 친구긴 한데 기술에 뛰어나진 않은 거지.

[해설] tech-savvy : 첨단기술에 능통한 → not tech-savvy : 기계치 (savvy : ~에 정통한)

computer illiterate : 컴맹 (illiterate : 무식한, 문맹의)

8. [정답] ③

[해석] A: Bill, 나 지난 3년 동안의 무수한 실패를 딛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어.

B: 와, 너 분명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해설] in dire straits : 곤경에 빠진

in the pipeline : (논의, 계획 등이) 한창 진행 중인 (곧 모습을 드러낼 단계에 있는)

on cloud nine : 너무나 행복한, 날아갈 듯한 기분인

on all fours : 네 발로 엉금엉금 기는

9. [정답] ②

[해석] TV, 인터넷, 라디오, 구식 인쇄 매체에서조차 24시간 내내 정치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당신은 정치에 대한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정치 뉴스와 정보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택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 선택지의 대다수는 썩 좋진 않다. (A)사실, 이 선택지의 다수는 사람들이 실제 그런 것보다 정치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김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보가 없는 시민들은 충분히 나쁘지만, 정보가 있다고 믿는 정보 없는 시민들은 더 나쁘다. 불행히도, 정치 뉴스에의 몰입이 이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정치 뉴스에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 뉴스에 훨씬 시간을 덜 쓰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고 분별없어질 수 있다.

[해설] (A): 선택지들이 썩 좋지 않다는 앞 문장의 요지를 받아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확장 및 부연하고 있으므로, 문맥을 이어 주는 In fact가 적절하다.

(B): 앞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는 좋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빈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 뉴스에 몰입하는 것이(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꼭 이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명시적인 해결책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불행히도’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정답] ②

[해설] ② A be responsible for B는 ‘A가 B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기내식이 일부 승객들 설사의 책임이 있다. 즉 기내식이 설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바른 영작이다.

① no longer는 ‘더 이상 ~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이므로, 영작된 문장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비극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no longer를 빼고, ‘더 이상 ~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not being able to play their instrument anymore라고 고치면 자연스럽다.

③ excess는 ‘과다, 초과’의 의미이므로 우리말 문장과 반대의 의미이다. ‘공급이 부족한’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in short supply라고 쓰면 된다.

④ ‘탈출하다’는 의미의 escape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따라서 was를 빼고 escaped라고 써야 한다.

11. [정답] ①

[해석]

① A: 그들이 하겠다고 한 일은 했으면 좋겠는데.

B: 맞아, 그들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게 틀림없어.

② A: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야.

B: 맞아,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지, 그렇지?

③ A: 그녀는 자기가 상사인 것처럼 군단 말이야. 모두에게 뭘 해야 할지 지시하고.

B: 맞아,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아래라저래라 하지.

④ A: 내일 주차장이 폐쇄될 거라는 표지를 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겠어요?

B: 네, 소식을 전달할게요. 사무실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낼게요.

[해설] 그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대해, 그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①의 대화는 부적절하다.

[어휘] keep to : 지키다

delicate : 미묘한, 섬세한, (문제 등이) 처리하기 어려운

turn to : 의지하다

order A about : A에게 아래라저래라 하다

car park : 주차장(parking lot)

pass on : 넘겨주다, 전달하다

12. [정답] ③

[해석] 건조 지대와 반건조 지대의 기후는 계절적, 산발적인 강우(降雨)와 높은 주간 온도 변동 등 극단적인 것이 특징이다. 습한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으로 갈수록, 강우는 더 불규칙적이고 덜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호우가 집중되는 사이사이에 극도로 건조한 시기가 끼어들어가게 된다.

[어휘] exorbitant : (가격, 요구 등이) 터무니없는, 엄청난, 과대한

copious : 매우 많은, 풍부한, 다작인

capricious : 변덕스러운, 잘 변하는

excruciating : 몹시 고통스러운, 참기 어려운

13. [정답] ④

[해석] 사막은 물 부족(1년 강수량 30cm 미만)과 주로 높은 낮 기온이라는 두 주요 조건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추운 사막도 존재하며, 로키 산 서쪽이나 아르헨티나 동부, 중앙아시아 다수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덮어 주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막은 밤에 열기를 빠르게 발산하고 차가워진다. 건조도는 지표 식물에 반영되어 있다. 진짜 사막에서는 식물들이 흙 표면의 10% 이하를 덮고 있다. 가시나무 삼림지대 같은 반건조 사막에서는 10~33%를 덮고 있다. 표면에 생명체가 없는 모래언덕을 지닌 사막은 거의 없지만, 분명 존재하긴 한다. 칠레 서부의 Atacama 사막 일부 지역에서는 여태 강수(降水)가 기록된 적이 없다.

① 사막은 보통 물이 부족하며 낮에 뜨겁다.

② 추운 사막은 구름이 충분히 덮어 주지 못한다.

③ 사막의 건조도는 식물들과 관계가 있다.

④ 생명체가 없는 모래언덕이 있는 사막은 꽤 흔하다.

[해설] ④ 마지막 문장에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Only rarely).

①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다. ② 세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다.

③ 네 번째 문장과 그 이하 예시에서 알 수 있다(ground cover : 지표 식물).

14. [정답] ④

[해석] 기억의 되살림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것들을 자연스레 기억하고,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 때문에 그려하다. 과거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보태는 그 무언가 때문에 상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의 본래적인 본질은 (B)실용적이라기보다는 (A)감정적이다. 미개인(야만인)은 내일 어떻게 더 잘 싸울지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짜릿함을 되씹으며 오늘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제 별인 동물과의 사투를 상기하는 것이다. 기억은 위험성과 불안함 없이도 전투의 짜릿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설] 빈칸 뒤의 예시에서 기억의 본래적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 어제 별인 전투를 회상하는 이유는 내일 더 잘 싸울 방법을 연구(즉, 실용적 목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지루함을 극복하려고 어제의 경험에서 짜릿한 감정을 되살리는 것(즉, 감정적 목적)이다. 따라서 답은 ④가 된다.

15. [정답] ②

[해석] 이타적 행위는 자연선택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 놀라지 않는다. 모든 자식은 그들 부모의 유전자의 복사본을 갖고 있으므로, 부모의 돌봄은 유전자형(遺傳子型)적으로 이기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이타주의의 유전자는 더 많아질 것인데, 자식이 그 동일한 유전자들의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개인의 몸에 있는 그것의 사본 덕분에 “이기적 유전자”는 증가하는 것이다. 감수 분열을 할 때, 특정한 유전자가 난자나 정자로 들어갈 확률은 50%이다. 따라서 부모 각각은 자식의 유전자에 50%씩 기여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특정한 유전자의 사본을 공유할 확률을 상관계수 r 이라고 한다. 유사한 논리로, 형제자매의 관련도 $r=0.5$ 이며,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r=0.25$ 이고, 사촌지간의 경우 $r=0.125$ 이다. 유전자 복제가 부모의 돌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형제자매나 사촌, 다른 친척에 대한 돌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 ① 동물의 이타적 행위는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없다.
- ② 친척 간 유전적 유사성이 때문에 이타적 행위가 발생한다.
- ③ 이타주의가 상호 교환되면 동물들은 서로를 돋는다.
- ④ 개인보다 집단이 위험에서 살아남는 데 더 성공적이다.

[해설] 이 글은 혈족에 대한 이타주의적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부모-자식 간에 특정한 유전자의 사본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사본을 공유할 확률 혹은 ‘관련도’는 이 글에서 상관계수 r 로 표현되는데, 형제자매, 사촌, 친척 등의 경우에도 특정한 수치로 존재한다. 이를 정리한 것은 선택지 ②이다.

16. [정답] ①

[해석] 연구들은 대중이 경제학자들이 쓰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지표를 두 개 고르라는 질문에, 대중의 단 32%만이 정부의 실업과 생활비 통계에 대한 뉴스 보도를 언급했다. 이와 비슷한 만큼의 미국인(28%)은 상점에서 발견되는 구매 행위의 양을 핵심 지표로 꼽았다. 절반 이상(55%)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했다. 어느 시점에서, 이런 개인적 경험들은 공식 통계에 묘사되는 것과는 다른,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비록 느린 속도이지만 성장하고 있던 지난 5년 동안, 미국인 3분의 1이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감내하거나 더 적은 시간을 일했다고 밝혔고, 또 3분의 1은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들은 이어서, 저축하지 못하게 되거나,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등 더 큰 경제적 문제의 가능성에 종종 연결되어 있었다.

- ① 대중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여 경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② 경제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경제학자들의 평가보다 더 정확하다.
- ③ 사람들은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 ④ 사람들의 구매 행위는 그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해설] 이 글은 대중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가 전문가들과 다르며, 과반수가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예시를 글 후반부에서 서술하고 있다.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도 적지 않은 수의 대중이 가족 구성원의 예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답은 ①이 된다.

17. [정답] ③

[해석] 착각 상관은 통계적으로 무관한 두 사건이 실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러 연관성을 “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가 안 올 때보다 비가 올 때 관절이 더 아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들은 이 연관은 그들의 상상력이 꾸며낸 허구임을 보여 준다. 아마도,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은 몸 속 철분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가 오기 전 그들이 더 통증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하게, 초기 골상학자들은 특정 뇌 부분의 손상과 특정 심리적 능력의 부족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보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해설] 처음 두 문장의 ‘착각 상관’에 대한 설명이 글의 주제이고, 나머지는 이에 대한 예시이다. 이 흐름에서 관절염의 자세한 양태를 설명하는 ③의 문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절염과 날씨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앞의 연구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18. [정답] ③

[해석] 최고의 상태 하에서도, 정보는 집단 내에서 펴짐에 따라 빠르게 변질된다. 심리학자 Donald Cambell은 지난해, 유명한 아이들 놀이 “post office”에서 따온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했다. 그는 대학생들을 의자에 한 줄로 앉게 한 뒤, 첫 번째 학생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읽어 주었고, 그 학생은 다음 학생에게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마지막 학생은 그 이야기를 종이 위에 쓰도록 요청을 받았다. 당신이 예상하는 대로, 집단 마지막 학생에게 도달한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와 거의 판판이었다. 첫 이야기가 John이 아내 Mary를 독살하는 내용이었다면, 끝에 가서는 Mary가 John을 독살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비일비재했다.

- ① 어떤 면에서도 바뀌지 않은 채로 남는다
- ②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천천히 퍼진다
- ③ 집단 내에서 펴짐에 따라 빠르게 변질된다
- ④ 뇌 기능 장애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

[해설] 빈칸 뒤에 나오는 실험의 내용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이야기를 집단 내의 한 구성원에게 들려 주고, 이를 계속 구두로 전달하게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19. [정답] ①

[해석] 국가에 가장 타격이 큰 자연재해는, 국가의 시내와 강이 일반적인 제방을 넘을 만큼 커지고, 옹벽을 넘어 돌진하는 괴물들처럼 달려들고 길목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해 버릴 때 발생한다. 긴급 뉴스 속보가 이로 인해 생긴 폐허와 나라 전역에 필요한 도움을 그림으로 보여주어, 구조의 호소에 개인적 동정과 관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비극에 대한 소통이, 사람들이 이 황폐화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항상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흥수 피해를 빵 가격 상승, 고기의 공급 고갈, 높아진 세금, 지역 공사용 철강의 감소 측면으로는 좀처럼 해석하지 않는다. 슈퍼마켓, 증기 난방이 되는 집, 거대한 사무실 건물과 공장, 온화한 도회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문명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비옥한 토양 몇 인치와 꾸준히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다.

- ① 비옥한 토양 몇 인치와 꾸준히 내리는 비
- ② 가격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통제
- ③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직화된 구조의 호소
- ④ 현대 문명사회의 회전과 유지

[해설] But communications~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정답의 근거가 된다. 자연재해의 피해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생산물이 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물가 상승, 공급 부족 등). 따라서 문명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는 ‘비옥한 땅과 꾸준한 비’로 상징되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①이 적절하다.

20. [정답] ③

[해석] 표절은 항상 명백하지 않고, 반드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술 프레젠테이션(슬라이드 등으로)이나 교육을 할 때 혹은 웹사이트 등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훌륭한 요약 도표를 제시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이 역시 저작권 침해로 비칠 수 있지만, 출처가 분명히 표시된다면(슬라이드에 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표절보다는 칭찬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 경계선은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공개적이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고 사적인 집단 안에서라면, 신경쓰는 사람(발견하는 사람조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보를 더욱 공개된 장소(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나 표절이라는 소리를 들을 위험성이 생긴다.

[해설] 주어진 문장의 dividing line(경계선)을 그을 두 가지 기준이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공개적인지’에 대한 서술이 ③의 빙칸 뒤에서 ‘작고 사적인 집단’과 ‘보다 공개된 장소’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장은 ③에 들어가면 적합하다.